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포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가정을 교회같이, 교회를 가정같이
- ◎ **선교학교:** 바누아투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학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휴강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연합 축제:** 가을 운동회와 함께하는 바자회가 6월 2일(월, Queen's Birthday)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홀과 마당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탁구대회, 스킵드라마, 피구등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증 받습니다. 특별히 의류, 슬리퍼, 운동화 등이 필요합니다. 25일까지 내 주셔요.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 ◎ **출국:** 담임 목사는 해외한인 장로회 총회(KPCA)와 선교사 대회 참석차 출타 중입니다. 건강한 일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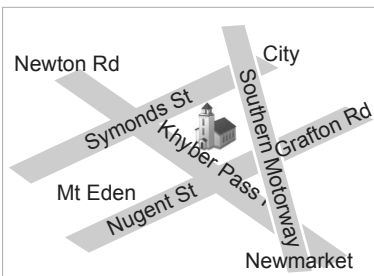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Rome 12:15

2014년 5월 18일 주일

16권 19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구원의 확신

몇년전 토끼를 마당에 놔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토끼는 비를 맞으면 죽는다고 들은 적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마당에서 비맞는 토끼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다 못해, 비가 오기 시작하면 토끼들을 주차장으로 몰아 비를 피하게 해야 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토끼들이 여간 빨라서 잡을수도 없고 주차장으로 모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토끼를 살리기 위해 그들을 주차장으로 이끄는 것이었지만, 토끼들은 제 속도 모르고 저만 보면 있는 힘껏 달아나 마당 구석이나 수풀 속 등 제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 일화는, 저희집에 어느날 쥐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작은 생쥐였는데, 어쩌다가 현관옆에 있는 작은 방에 저와 단둘이 대면되었습니다. 그야 말로 독안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쥐를 때려 잡을 수도 있었지만, 쥐를 살려주고자 방에 붙은 현관문을 열고 쥐를 그쪽으로 몰았습니다. 계속 몰아부쳐서 쥐를 거의 현관까지 몰았었는데 돌연 반대방향으로 틀어서 문지방의 작은틈을 통하여 부엌쪽으로 달아나고는 어둠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쥐는 다음날 아침 부엌에 있던 쥐덫에서 발견되어 짧은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두가지 일화를 통하여 제가 깨달은 것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저도 작은 생명들에게 살 길을 찾아주고 싶어하는데,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아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해주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생명의 길을 믿지 못하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당장 편해보이는 곳으로 도망가기에만 급급한 삶을 살며, 구원의 확신을 하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일을 지키고, 성경도 읽지만 과연 이것이 다인이지? 그리고 과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은 참다운 기독교인인지 다시 한번 회개 하며 아래와 같이 기도드립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시편 17:8),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시편 23:2) 하나님, 보지 않고도 믿지 않는자는 행복하다고(요한 20:29) 하시는 하나님, 또한 복주고 복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겠다는(히 6:14)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해주시고, 눈앞에 닥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충실한 종으로 살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남영수집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성철목사

- 전 주
- 예배로 부름
- 개 회 송
- 참회의 기도
- ※ 찬 송
- ※ 성 시 교 독
- ※ 신 앙 고 백
- 찬 송
- 대 표 기 도
- 성 경 봉 독
- 찬양대 찬양
- 설 교
- 찬 송
- 헌 금 기 도
- 교 회 소 식
- ※ 응 답 송
- ※ 축 도

반주자
 로마서 12:1
 찬양대
 다함께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38. 시편 92편
 사도신경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김철재 집사
 요한복음 5:1-18
 나무십자가 찬양대
참된 안식/이성철목사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인도자
 인도자
 나 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네
 이성철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 찬 양
- 기 도
- 성 경
- 설 교
- 합 심 기 도
- 광 고
- 찬 송
-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영옥 권사
 갈라디아서 6:1-5
짐을 서로 지라/심창진목사
 인도자
 인도자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이예찬 형제

◎ 5월 교회악기

월삭기도회: 5월 1일(목요일)
 자녀주일: 5월 4일(주일)
 세례식: 5월 4일(주일)
 부모주일: 5월 11일(주일)
 공동체주간 수요예배: 5월 26일(수요일)

◎ 5월 예배봉사자

예 배 안 내: 남영수/김현주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제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이규임 권사
 다음 주일: 박병민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Seira 자매
 5월 28일 수요: 김태만 집사
 5월 28일 애찬: 박후임 집사
 6월 1일 주일: 최광암 집사
 6월 1일 청년부: 최정인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득히 임하므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 가도록
2. 선교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운동회와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잘 준비되므로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도록
3.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 깨어서 주위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4. 가정의 달이 끝이 나갑니다.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가정 공동체가 주님 은혜로 세워지고 회복 되도록

5월 새벽기도회 본문

23일: 사무엘하 13:1~14 비뚤어진 육체의 욕망
 30일: 사무엘하 15:13~23 진정한 충성과 배려는 어려울 때 더 빛납니다

선교와 중보기도

2주 만에 여러 성도들을 뵙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저는 여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한국을 경유하여 지금은 LA 홀리톤 장로교회에서 개막한 총회에 참석 중입니다. 한국을 경유 하면서 섬기던 교회를 방문한 이야기와 그곳에서 만난 루마니아 김유정 선교사의 최근 근황을 알려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질랜드에 살면서 한 두번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전에 섬겼던 교회를 찾지 않았는데 이번엔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연세드신 권사님들을 뵙고 싶었기 때문이고 또 이들 대부분이 80대 초, 중반의 고령이신지라 다시 뵙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당을 들어서기 무섭게 반겨주시는 어른들의 따스한 미소는 예전 그대로지만 굽어진 허리와 조심스럽게 내딛는 서투른 발걸음은 흐르는 세월을 비껴 갈수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건네는 당신들의 정갈한 신앙 언어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엿보기에 충분했고 귀천을 소망하는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에는 자못 범접하기 거룩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의 흐름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찰라에 불과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여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발병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에 머물면서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섬겼던 교회를 찾아온 김유정 선교사를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나 반가움 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했습니다. 왜냐면 60대의 촌로를 만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만큼 늙어버린 선교사님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항암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출산도 않은 여성의 얼굴이라고 믿기에는 루마니아의 차가운 샷퐁에 십수년을 노출한 탓이겠지요. 더욱이, 어느덧 40초반이 된 옛지체들이 영적인 아버יו 스승이 왔다고 마련한 음식을 겨우 몇 숟 뜨다가 더 이상 먹지 못할 만큼 쇠약해진 몸을 잘 가누지 못하면서도 루마니아에 가져갈 헌옷가지를 챙기려 가야 한다며 총총히 멀어져가는 뒷모습은 선교사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과 영광이 있기를 기도 할 뿐입니다. - 이태한 목사

기도제목

1. 항암 치료의 후유증에서 잘 회복 되도록.
2. 함께 사역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3. 세워져 있는 현지인들이 말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